

휘발유	1468
경유	1288
고급휘발유	1728

[르포]
코로나19사태 속
8주째 유가하락
주유소 가보니
02



Economy

코스피	1566.15	(0.00)	코스닥	467.75	(0.00)
금리 (2년)	1.11	(-0.09)	환율 (원/달러)	1246.50	(-39.20) 20일

'코로나19 장기화' 재계, 플랜B 비상경영 가동 생산차질 넘어 생존위기... 초비상

JY 현장돌고 최태원은 영상회의 현대기아차 재택 중단, 비상근무 항공사, 정부 경영자금 지원 건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계도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을 막는 것은 물론, 경제 위기에 따른 생존을 우려해야 할 상황에까지 놓였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했다. 지난 3일 경북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을 찾은 지 불과 약 2주만이다. 이 부회장은 사업장을 둘러보는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흔들림 없이 도전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져나가며 장기화됨에 따라, 또 다른 극복 노력이 필요해졌음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만간 비상경영회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이 코로나19 감염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핵심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도 실적 악화에 직면한 이유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는 23일부터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일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해외 사업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했다. /삼성전자

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미국과 동유럽 생산 기지를 결국 폐쇄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나마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밖에 다른 주요 기업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했던 방침을 변경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다시 현장 근무로 전환하거나, 격일제 출근을 실시하는 등 재택 근무보다는 업무 효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피해가 적을 것으로 기대됐던 반도체 업황도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 램리서치와 네덜란드 ASML 등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섀도우를 결정하면서 당장 설비 투자와 기술 지원

등이 어렵게 된 것. 전 세계적 경제 악화로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전년보다 시장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공포까지 재계를 뒤덮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12월이 만기인 국내 회사채 50조8727억원어치 중 4월 한달에만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6조5495억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 돈을 갠왔지만, 경제 위기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업어음(CP) 금리가 상승하면서 '돈맥경화' 위기도 커지는 모습이다.

생존이 불투명한 항공업계는 정부에 지원 건의에 나섰다. 지난 19일 항공사가 모여 정부에 경영자금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것.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책은행 지급 보증을 선행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통해 자금 순환을 돕겠다는 의지다. 단,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를 가정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재욱 기자 juk@metroseoul.co.kr

귀국시기 농친 해외 봉사단 코이카 농장대응·은폐 논란

'단원 귀국조치 시행' 게시했지만
실제로 최근에야 선별 작업 정도
직향노선 막혀 귀국도 어려울 듯

코이카(KOICA)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농장대처로 인해 해외 봉사단원 귀국에 차질을 빚고 있다. 봉사단원이 귀국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관련 건강검진도 받지 못한 채 급히 귀국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코이카 측은 허술한 대응을 은폐 축소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홈페이지 게시 '들쭉날쭉'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2일(현지시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코이카가 봉사단원 귀국을 추진하면서 '농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코이카는 지난 20일 42개 개발도상국에 파견된 봉사단원과 동반 가족의 귀국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와 미국 평화봉사단(PeaceCorps)은 각각 15일과 17일부터 해외 봉사단 단원을 귀국 조치시켰다.

또 18일 코이카 홈페이지에는 전과 견국 비필수 인력 일시귀국(대피)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지시한 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20일자 홈페이지에는 "18일 해외 비필수인력 전원대상 순차적 일시귀국(대피) 시행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홍보담당자의 말은 달랐다. 그는 18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일시 귀국과 관련해 어제오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봉사자에 관해서는 들

[추가 안내사항]

- 일시귀국 관련,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및 카톡 등으로 일시귀국 내용 게시 및 외부 언급 자체 부탁드립니다.
- 봉사단원 일시귀국으로 인한 교민사회 동요 및 수원기관 측에 부정적인 인식 최소화를 위하여, 일시귀국 관련 내용 SNS 등 일시귀국에 대한 내용 업로드를 자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사무소 명의로 기관에 공문 안내할 예정이니, 단원의 개별적인 안내 또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문의(인터뷰 요청, 내용확인 등) 선택으로 인한 업무 지연 등 어려움 발생 우려)

일부 국가 코이카 사무실에서 일시귀국과 관련해 SNS를 통한 언급 자체를 권고했다.

/코이카 봉사단원 제보

아울러 말지에 대해 현재 선별작업 중"이라며 "(기자) 너무 빨리 취재를 시작한 것 같다. 당장은 몇 개의 국가에서 몇 명이 돌아오는지 정리된 자료가 없다. 내일 다시 전화하면 정보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하늘길 막혀 봉사자 '발 동동'

봉사자들의 귀국 길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은 대부분 한국 직항 노선이 없어 유럽, 미국, 중동 국가들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국경을 봉쇄하거나 하늘길을 통제하고 있어 항공편을 구하기조차 어렵다.

한국과 아프리카 간 항공 노선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을 거쳐야 하지만 외국인 입국이 전면 금지됐다. 경유할 경우 공항에서 14일간 격리 후 출발할 수 있다.

(2면에 계속)

/조효정 기자 princess@



줄지어 선 유럽발 입국자들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강화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진단 검사를 받는 곳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外人 ATM기 된 韓... 이달만 10조 매도

외국인 주식 매도공세 거세
▶ 신흥국 중 대만 이어 2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이 다시 글로벌 투자자들의 현금자동출금기(ATM)로 떠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서둘러 한국 주식을 팔아치워 달리를 비축한 것과 것과 판박이다.

오히려 과거보다 단기간 투매규모가 더 커졌다. 기존 한국 증시의 잠점과 함께 저금리 기조에 풍부해진 시중 자금

이 외국인 매물을 모두 받아준 탓이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맞교환)나 안정기금투입 등의 조치에도 당분간 외국인 매도공세와 달러 강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국내 주식 시장에서 10조5241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2월 한 달간 외국인 순매도 규모(3조2250억원)를 이미 큰 폭으로 웃돌았다. 코스피시장에서만 10조6793억 원어치를 팔았고, 코스닥시장에선 1552억원의 순매수를 나타냈다. 지난

9일에는 단 하루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 1조4510억원을 팔아치우기도 했다.

신흥국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외국인의 매도공세는 한국에서 유난히 거세다.

국제금융센터의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4주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102억40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중국과 홍콩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는 대만에 이어 2위 수준이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고위공직자 '월급 반납' 릴레이

文대통령 등 장·차관 이상 58명
지자체장·興 등도 동참 분위기

정치권이 '월급 반납' 운동에 나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21일 4개월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월급 중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월급 30%를 반납하는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가 포함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8명이다. 문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기준 2억2629만원이며, 장관·장관급 연봉은 1억3164만원, 차관·차관급 연봉은 1억2785만원이다.

이들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문 대통령은 약 1885만원, 장관·장관급은 약 1097만원, 차관·차관급은 약 1065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납한 월급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 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월급 반납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 사실을 밝혔다.

정부 사업 역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방역과 함께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워크숍에는 주요 부처 장관 등 전국 공무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참석 기관장(금융위·방송통신위·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워크숍에서 종교시설뿐 아니라 실내 체육 시설, 유흥시설 등에 15일간 운영을 제한하기로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일부도 월급 반납에 동참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사태에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